

Ji-Young Lee, *China's Hegemony: Four Hundred Years of East Asian Domination* (Columbia University Press, 2016)

### 1장. Understanding the Tribute System

- 저자의 문제의식은 조공체제가 중국의 헤게모니와 당시 국제질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. 이에 대해 중국의 우월적 능력에 의한 패권안정의 질서로 보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, 상징적 지배 규범을 매개로 국가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구성된 사회적 질서라는 점을 주장함. 이에 따라 주변국이 왜 조공체제에 순응, 저항 등의 참여를 하였는지 주변국의 정치적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#### 1. 기존연구 검토

- 1) the Fairbankian model of Sinocentric hierarchy
- 2) the New Qing perspective
- 3) the transnational economic history school
- 4) China's borderlands studies perspective
- 5) the investiture model
- 6) the tianxia system

-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은 조공체제가 시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조공체제를 중국의 전략 혹은 중국의 힘, 문화의 투사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음.

#### α The Fairbankian model Versus the New Qing Perspective

- 페어뱅크는 조공체제를 일련의 관념과 실천으로 인식, culture-based 차원에서 중국의 우월성이 위계의 기초라는 시각.
- 주변국들의 실제 참여 동기는 중국관의 조공관계를 맺음으로써 주변국이 얻는 물질적인 이익에서 비롯됨. rational logic.
- 페어뱅크 모델의 한계는 일본이 sinic zone에서 궁극적으로 outer zone으로 나가는 반면, 한국은 sinic zone에서 계속 있는데, 양국의 궤적의 차이를 페어뱅크의 중국 우월의 관념이 중심이 되는 조공체제 설명으로는 분석할 수 없음.(중화문명을 수용한 정도에 따라 또한 중국과 지리적 접근도에 따라 sinic zone/inner asia zone/ outer zone으로 구분)

- 신청사는 Fairbank 접근법에 반대. 첫 번째 이유는 중화문명, 중화정체성은 중화제국과 별로 연관이 없음. Who was China? 두 번째는 획일적인 조공체제 모델로는 실제로 조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의 특징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비판. (청은 천자 -> *Cakravartin*(티벳), *Khan*(유목민족) 등 전략적으로 다양한 정체성과 상징을 다양한 지역에 행사하였음.)
- 저자는 페어뱅크와 신청사에서 각각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함.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유교적 세계관은 중화체제 작동의 핵심 매커니즘인데, 이것이 영구적으로 작동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정치적 조건. 신청사의 전략적 목적에 의한 문화와 정체성 관점을 페어뱅크 모델에 적용하여, 조공체제가 장구적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, 문화적 조건을 조금 거르고 국내정치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#### o The Borderlands Studies Lens

- 중국이 非한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, 華가 夷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지배보다는 기미정책을 사용하였음.
-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은 세 가지. 문명의 중심을 수호하는 것 혹은 야만을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원이 직접 나서 군사력을 사용하거나, 봉건 영주를 통해 야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거나, 이이제이.
- 마지막 전략이 자유방임적 조공체제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기미정책을 통해 완전하게 복속하는 관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지역에 그들의 통치양식을 온존시켜주면서 물자를 제공해줌으로써 중국에 복속시키는, 명목상의 지배 정책을 의미.

#### o Investiture Model Lens

- 책봉모델. 주변국들이 중국과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은 것은 경제적 동기에서만 볼 수 없음.
-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화문명을 수용하는 의도에는 국내적 통치체제를 완성하는 목적이 있었음. 책봉을 통해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국내정치적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중심의 관점을 주변국과의 상호작용으로 관점을 분산. (니시지마 사다오)
- 중국이 변경지역의 야만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다룰 때도 기본적으로 기미정책을 취하였는데, 책봉은 기미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. (도시카주 호리)
- 한반도의 경우도 조공체제를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만 참여동기를 볼 수 없음. 대내정치적 정당성 부분, 국제정치구조가 상대적으로 다극이 되었을 때 전략적 부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#### o Transnational Economic History Lens

- 조공체제를 무역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는 시각. 국가 간 교역뿐만 아니라 상인들 간 무역 경로, 기술이 전파되는 경로로써 조공체제의 기능을 보는 관점.
-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가 중화제국의 통치, 돈, 기술 하에서 헤게모니를 형성하여 안정을 이 끌었다는 것. 그리고 여기에 국가들이 상황에 따른 저마다의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.

- state-centric한 관점을 깨고 중심과 주변을 합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조공체제를 이해하는 관점.

#### o The Tianxia System Lens

- 조공체제의 철학적 사상. 세계는 하나의 big family. 서구의 주권국가 이데올로기는 세계를 전체로 보는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 없으며, 나의 이익을 타국가에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.
- 천하개념은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려고 하며, 타자를 배척하지 않는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함. 이는 조공체제를 통해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비전을 투사시키는 수단.
- 반대의견. 주권국가체제가 강하게 자리 잡은 현대에 천하개념은 유용성이 떨어짐. 국력이 불균등한 주권국가체제에서 오히려 위계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도임(엔쉐통).
- 조공체제는 중국의 물질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권력이 상징적 지배에 대한 규범으로 만들어졌음. 하지만 이 자체로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, 이 규범이 중심-주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준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헤게모니가 지속되는 것임.
- 따라서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상징적 지배의 규범이 국가 간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함.

## 2. Record of Tributary Envoys: Analyzing the concept of Authority

- 상징적 지배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방법론적으로 textual analysis를 취하고 있음.
- 조공사절단이 남긴 문헌을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입장뿐만 아니라 조공체제에 참여하는 주변국의 인지-상징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언행을 통해 권위(authority)의 개념을 해석적 방법으로 밝히고자 함. 명청시대의 조선, 중국 사절단의 경험을 『연행록』과 『Shi Chaoxian lu』를 통해 분석하고 있음..
- 조선과 중국의 사이의 authority는 합리적 계산으로만 볼 수 없는 관념적 요인에서 발생.
- 관념적 위계관계의 패턴은 사절단이 방문 했을 때 상호 대우, 의전을 통해 표현됨.
- 조선 사절의 글에서는 중국 황제와의 만남을 특별하게 서술하고 있음.
- 중국 사절의 글에서는 한반도가 천자의 자비심 때문에 'sinicized' '중국처럼'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.
- 그런데 한국 사절단의 경우 personal essay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사상이 나오긴 함. 중국 관료의 부패문제를 지적/중원왕조의 도덕적 우월성 언급(명 황제를 섬긴다. parent,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침으로서 명과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등..)
- > 조선이 중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수용한 것은 사회, 문화적 맥락에서 중국 황제라는 상징적 권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강대국에 편승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음.
-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명과 청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는 점을 비교해볼 수 있음. 중원왕조가 유교의 도덕적 권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선이 중원왕조에 예를 갖추는 것이 힘든 일

이였음.

- 조공체제에의 참여가 중국의 물질적 함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의 두려움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조선은 청에 훨씬 순응했어야 했다. 하지만 청왕조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문명국인 명과 야만의 만주의 이분법적 시각에 의존하였음.
-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과 조공관계를 맺지만, 중원왕조로써의 권위는 명에 비해 훨씬 낮았음. (사절단의 청 방문 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남.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다,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야만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...)
- 중화문명 중심의 관념 부분이 조공체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관념은 실천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행위, 표현들로 그 권위가 강화된다. 그리고 이 권위는 행위자들이 사회적, 관념적 구조로서 문명과 야만의 위계질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중화제국과 주변국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

### 3. Practice-Oriented Approach to the Tribute System

- 이상의 중국 중심의 권위에 대한 규범이 실제로 작동한 양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함
  - 1) 행위자들이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 서로서로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
  - 2) 중국 헤게모니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지배적 양식은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행위를 규제하면서 위계적 질서를 구성하는 것인데, 이것이 중국-주변국, 주변국 간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
- 중국 헤게모니에 참여하는 동아시아 외교관행은 상징적 복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. (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음/중국식 달력 양식을 수용함/책봉관계를 맺고 군신의 관계를 형성함. 국서에 신하로 표현)
- 중국 헤게모니의 위계성에 대한 지배적 양식은 국가 간 관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의 범위를 제약함. 당시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던 지위에 따른 행동양식이 있었음. 문명과 야만에 따른 조공 관행의 수행양식. (북방민족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도 공식적으로 야만, 천자에 예를 갖추어야 함/조공은 경제적 형태가 아니라 중화제국의 우월한 지위를 상호 인정하는 행위임/책봉을 받는 국가는 대내정치적 정당성을 제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또한 침략하지 않음을 상호이해)
- 이상의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상징적 복종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것이고, 따라서 이는 조공체제에 참여하는 국가 들 간 공유되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함.
- 이러한 관계규범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중국-주변국뿐만 아니라 구성국가 간 관계를 맺는 기본 매커니즘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었음.
- 따라서 주변국을 단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지위로 보면 안되고, 주변국이 중국 중심의 상징적 지배를 국내정치적 필요성과 어떻게 결합하여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지를 봐야 함.

\*Chinese mode of social relations로써 조공체제는 중국의 능력의 우위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권력과 power politics 에 의해 기본 규범이 정해지지만, 조공체제는 주변국에 대해 중화제국이 자신의 상대적인 힘의 우월을 통해 위계적 관계양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,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위계구조가 만들어진 것임. 이의 연장선상에서 주변국의 지위, 주변국의 정치적 목적과 행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.

->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중심의 조공체제 구상, 조선의 소중화 등등.

->조공책봉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,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교관행의 규범으로 작동하였던 것. (단 한국과 일본 간에는 상호 동등의 관념이 금기시되었음)

#### 4. 연구설계(사례선정의 이유)

- 조공체제가 중국 헤게모니의 사회적 질서라는 측면에서 주변국의 대내정치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사례로 명청기 한중관계와 중일관계를 선택하였음. 명청과 조선의 관계가 국내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공체제의 참여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. 일본은 조공체제의 참여에 있어서 조선의 사례와 대조하여 다른 변수,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택하였음.